

“유달산 둘레길 개발 서둘러야”

목포경유 제주 올레길 관광객 유인책 등 시청내 학습동아리·시민 제안 이어져

‘서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를 제1 시정 목표로 삼은 목포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둘레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목포를 거쳐 제주를 찾는 올레꾼(관광객)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둘레길이나 골목길과 같은 관광자원을 개발해 이들이 목포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올 11월말 현재 제주 올레길은 총 21개 코스에 357km가 조성돼 있으며, 2011년에만 110만 명이 다녀갔다. 특히 이 가운데 연간 50만 명이 목포 뱃길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목포시청내 학습동아리 ‘발마사’(발길 따라 머무는 사람들) 회원들은 1년간의 연구·조사를 거쳐 “도심 골목길인 ‘종로 동네골목’과 ‘대구 근대골목’ 사례

분석을 통해 목포시도 도보 여행의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근대역사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에 산재된 ‘목포 속길’을 비롯해 유달산, 선장가, 수산물 종합시장, 삼학도 난영공원, 노벨평화상 기념관, 바다 어린이 체험관, 요트 마리너항 등 목포 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하는 둘레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기획과 장일래 씨는 “(사) 올레 사무국, 목포 아트센터, 목포 1395 게스트 하우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감성도보여행지로서 매력이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었다”면서 “올레꾼 특성을 고려한 목포만의 가치 발굴과 올레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파릇파릇 봄동 수확

완도군 청산면 청계리 주민들이 봄동을 수확하고 있다. 늦가을에 씨앗을 뿌려 겨울과 이른 봄에 수확하는 봄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향이 진하다.

〈완도군 제공〉

여수 돌산 죽포·서덕리 일대 경지정리 사업 추진

65ha 내년 가을 착수

여수시 돌산을 죽포·서덕리 일대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지 정리사업이 추진된다.

돌산읍 승월지구 일대 약 65ha의 농경지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

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

이다. 이곳 농경지들은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용·배수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하천에서 암수하기로 양수하거나 일부 관정을 사용해야 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

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를 이용해 모내기와 방제, 추수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가뭄이나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마다 저수지의 물을 응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내년 가을에 사업을 착수, 오는 2014년 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김충석 여수시장과 시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와 사업신청의 필수 요건인 해당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바탕으로 여수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영농권의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박종진의 쾌도난마

뉴스A

여수시 PD 먹거리X파일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매주 금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영광 방조제 물막이 붕괴 피해규모 늘어

염전·농경지 42.9ha 바닷물 침수…郡-시공업체 책임 공방

영광에서 발생한 방조제 임시 물막이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염산면 송암리 송암2방조제 배수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물막이(길이 60m·높이 3m)가 붕괴되며 염전 34.4ha와 농경지 8.5ha 등 42.9ha가 바닷물에 침수됐다.

초기에 산정된 피해 규모는 염전 27ha, 농경지 10ha 등 37ha였다. 피해 농경지는 보리밭 4.1ha, 마늘 0.2ha 등이며, 염전은 해수 58동, 결정지 5.2ha 등이다. 재산피해는 농경지가 1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염전은 집계가 진행 중이다.

영광군은 27일까지 시공업체, 주민

과 정확한 피해 규모와 금액을 산정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공무원과 중장비 등을 동원, 무너진 임시 물막이를 복구하고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업분 섞인 바닷물이 유입돼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소금기를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곳은 송암2 방조제 개·보수공사 현장으로 2012년부터 3년

간 사업비 18억여 원을 들여 배수갑 문 2개 등을 설치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함수비(含水比)가 높은 흙을 사용해 만조를 견디지 못하고 물막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보상 문제는 먼저 주민들과업체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어렵다면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영광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상복 터진 완도군 51억 확보

완도군이 올해 각종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공모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총 51억원의 상금과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올해 한해동안 4년 연속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최우수상을 비롯해 3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완도 전복

특구 우수상,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상, 2년 연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농수산식품부의 2013 어촌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고, 전남도의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사업에 선정

돼 4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44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대상,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산경영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김종식 군수는 “시상금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부족한 군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전통식품 ‘조청’ 튜브형 용기 인기몰이

끈적거리며 흘러내려 먹기 힘들었던 조청이 깔끔한 튜브형 용기에 담겼다. 전남도의 한 전통식품업체가 지금까지 항아리형 용기에 담겼던 조청을 휴대하기 편리한 튜브형 용기에 담아 판매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담양 창평면의 수제한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안복자한과(대표 안복자)는 자체 개발한 튜브형 조청 용기 제품을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 생산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청 용기는 대부분 항아리형 형태여서 먹기가 불편하고 위생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튜브형은 먹을 만큼 쪼울 수 있는 등 사용이 편리하다.

전남도 명창한 식품유통과장은



“조청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포장과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판매가 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청(造淸)은 우리 조상의 지혜와 오랜 역사가 담겨있는 전통식품으로 끓게 고아서 굳어지지 않은 물엿을 말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시 공무원 봉사 릴레이에 맞아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릴레이에 나섰다.

여수시는 “송년회를 대신해 2000여 명의 공직자가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교육지원단의 외국인 노동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24일 보건소 한빛무의탁 요양원 ▲26일 도심개발사업단 기쁜노인요양원 ▲27~28일 환경복지국 믿음의 집·신명 노인요양원 ▲28일 광보답당 관실 더불어 사는 집, 직소민원 담당관실 여수새길, 건설교통국 삼혜원·남산요양원 ▲31일 기획경제국 어리고의 집, 자치행정국 탈북자 방문 등 15개 실국소단위 위원회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일정별로 봉사활동에 나선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